

임실군, 사이버스포츠관 첫선

치즈테마파크내 스크린야구·축구·양궁·스키 등 7개 종목 임실 산타축제 23~25일 임시 개관... 정식 개관은 내년 1월

임실군이 올해 '한국관광의 별'로 떠오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사이버스포츠관(가칭)을 운영한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3 한국관광의 별'로 전국에서 유일할만한 치즈를 테마로 한 관광지로서 매년 200만여명이 찾는 임실군의 대표관광지다. 이곳에 굳은 관광객들에게 한층 더 다이내믹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사이버스포츠관을 새롭게 만들

어 운영한다. 치즈테마파크에 있던 기존 4D영상관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사이버스포츠관에는 스크린야구 등 7가지 사이버스포츠 시설(축구, 야구, 양궁, 볼링, 스키, 스노보드, VR놀이기구)이 마련됐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될 임실 산타축제에 임시 개관하여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중 정식 개관 예정인 가운데

데 산타축제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종목당 이용료는 3,000원이다. 임실 산타축제는 올해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메인 특설무대를 비롯하여, 화려한 크리스마스스트리에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각종 체험 놀이기구 풍부한 놀이존, 맛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존 등 구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산타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산타퍼레이드 공연대회는 참가단체를 대상으로 특색있는 산타 복장 및 겨울 분위기를 연출하여 테마파크 전역을 행진하는 퍼레이드 프로그램으로, 참가 신청은 8인 이상으로 참가지원비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임실 산타축제에서는 겨울을 대표하는 썰매놀이를 할 수 있는 치즈컬링장과 산타썰매장이 마련된다.

심민군수는 "올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에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사이버스포츠관도 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사이버스포츠관(가칭)

<사진=임실군청 제공>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동·동·동화 축제' 개최

예루원 일원서 23~24일... 꿈꿈 낭만 캠프닉 테마 운영

남원시는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겨울(冬)과 아이(童), 그리고 동화를 모티브로 한 색다른 축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예루원 일원에서 오는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개최 예정인 '2023 동·동·동화 축제'는 텐트 밖은 꿈꿈 낭만 캠프닉을 테마로 운영된다.

특히 예루원과 화인당은 한옥의 따스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크리스마스 와 연말연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반짝이는 공간으로 연출되며, 다양한 공연과 함께 체험행사까지 더해 이틀 동안 동화 같은 축제로 울려울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축제의 주 공간인 예루원 앞마당에서는 캠핑과 소풍(피크닉)을 더해 낭만 가득한 '캠프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과 인디언 텐트에서 따뜻한 화롯불을 쬐며 도란도란 수도도 떨고, 따끈한 겨울 간식과 함께 즐겨주는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할머니가 읽어주는 K-동화, 추억을 되새기는 전통놀이 등 어른도 아이도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예루원을 지나 예촌으로 가는 길목에는 다가를 새해 바람을 적어보는 소원 메시지를 걸어 따뜻하고 희망찬 마음을 공유하는 공간도 있으며, 예촌 옆 더(the)이음 공연장에서는 남



원소년소녀시립합창단의 아가rella 공연, 마술공연, 크리스마스 뮤지컬 등 동심을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있어,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 모두가 겨울 분위기를 동심으로 돌아 가보는 추억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한겨울 추위와 한해를 마무리하는 헛헛함에 더욱 촉개만 느껴지는 겨울을 2023 동·동·동화 축제를 통해 동심과 낭만을 즐기며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23일과 24일 남원을 찾아보길 권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금과면, 풍산면의 각 마을회관에서 전반적인 사업 설명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18일 군에 따르면 내년 국비 예산 2억 3천만원을 투입해 금과면과 풍산면에 속한 관내 자연마을 3개 지구(내동, 대가, 두승)의 6개 마을 총 1,267필지 면적 49만 5천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절차에 대해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이양형 기자

남원시 환경사업소, 2022 회계연도 기금 성과 우수

남원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2022회계연도 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내실 있는 기금 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4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관리·집행 및 성과목표 달성 등의 지표를 평가하여 사업별로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남원시는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한 수질개선 및 수질 오염물질 삭감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분 40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현재 남원시 환경사업소는 하수도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전통주·음료, MD' 창업교육 수료식 개최

수료생중 16명 창업 성과 거둬

남원시는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통주·음료', '크리에이터 & 상품기획자(MD)' 창업 교육을 마치고 수료생 중 16명이 창업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난 15일 수료식과 네트워킹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최경식 남원시장의 수료증 및 표창장 전달과 함께 교육을 수행했던 김상진 전주대 산학협력단장과 정희석 우석대 산학협력단장 표창장 전달도 함께 진행되었다.

올해 교육은 엠제트(MZ) 세대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전통주와 음료 창업, 유통전문가를 육성하는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소싱 상품기획자(MD) 양성 2개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2월부터 12월 초까지 이론과 실습, 현장실습, 1:1 창업 멘토링을 통해 창업 시 필요한 경영 기술과 본인의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남원시는 지난 15일 2023년 '전통주·음료', '크리에이터 & 상품기획자(MD)' 창업교육수료식과 네트워킹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남원시는 지난 3년간 '김부각'과 '가정간편식', '밀키트', '드론' 창업 교육을 통해 45명의 창업인을 배출해냈으며, 올해에도 2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16명이 창업하는 기업을 토해내며 목표를 이루었다. 한 수료생

은 "이번 교육은 창업을 위해 평소 배우고 싶었던 내용이 기회 주신 남원시와 전주대, 우석대 산학협력단에 너무 감사드리다며, 배운 것을 토대로 창업에 성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서 연말 애향장학회 장학금 기탁 잇따라

2023년 연말 연이은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임실군애향장학회 기탁의 뜻깊은 마음이 끊이지 않고 훈훈함이 이어지고 있다.

(재)임실군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따르면 18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지사장 박민철) 215만원, 임실군4H연합회(회장 최용하) 200만원, 임실이도건축사(대표 김중수)가 300만원을 임실군을 방문해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애향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4년 전 시작해 올해로 5년째 장학금을 기탁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박민철

임실·순창지사는 "직원들이 실시 일반 정성을 모아 지역의 참된 일꾼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애향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 먼저 다가갈 다양한 지적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주민과 함께하는 참된 공기업으로서 모습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임실군4H연합회 최용하 회장은 "현재의 우리 농촌 현실은 매우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지역일꾼을 키우는 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청년농업인 46명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숲가꾸기 사업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선정

순창군, 숲가꾸기 사업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2023년 숲가꾸기 사업 분야 전라북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이에 군은 표창패와 함께 시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생태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산주들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순창=이양형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